

국제수산월간동향

2020. 5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차 례

1. 조업 전자감시(EM) 설계의 고려요소 3
2. 트럼프 행정부 참다랑어 혼획법 피소 5
3. 인도네시아, 코로나19로 불법어업 단속 느슨해지지 않아.... 6
4. 베트남 십각류 무지개 바이러스 경보 8
5.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한 다랑어 공장, 재가동..... 9

1

조업 전자감시(EM) 설계의 고려요소

- 견고한 전자감시(EM)의 개발 및 도입은 특히 COVID-19에 따른 오피스 승선 면제 이후, RFMO에서의 데이터 수집에 기여할 수 있음.
- PEW의 의뢰에 의해 캘리포니아 환경연합(CEA)은 최근 RFMO에서의 전자감시를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발표하였음.
- 보고서는 “어업에서 EM의 현황에 대한 요약은 제공하는 여러 보고서들이 있었고, EM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, RFMO의 맥락에서 EM 프로그램의 설계 및 도입의 특수한 도전들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”고 하고 있음.
- 로드맵 문서는 EM 프로그램의 설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15개 요소를 제시하고 있음.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:
 - 교훈의 전달, 해결책 마련, 및 피드백 제공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신속한 소통
 - EM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기관을 명시하는 명확한 프로그램 목표 및 구조
 - 데이터의 수집, 분석, 전송, 및 저장 방법의 세부기준
 - 선원 및 데이터의 비밀보호
 -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, 개선 절차

■ 전자감시가 직면한 도전

- CEA는 어업에서 EM의 6가지 주요 도전들을 열거하였음.
- 첫째는 부수어획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어획물 취급기술 및 카메라 위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,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임.
- 멸종 위기종의 식별은 보다 높은 분류학적 수준에서 가능하지만, 어종 수준까지는 아님. 보고서는 고해상 카메라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음.

- 보고서는 EM에 의해 다랑어 치어들을 식별하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하였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것은 사람 오피서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였음. 또 하나의 장애물은 EM 기술들이 FAD 부이 식별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점임.
- 현단계에서 EM은 생물학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지만, 항구 샘플링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.
- 마지막으로, EM의 문제점은 어류의 생존여부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는 점임.
- 보고서는 또한 EM이 오피서버들이 먹고, 자는 등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시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.
- COVID-19가 끼친 영향에 비추어, 그 어느 때보다도 RFMO들이 전자감시를 수용해야 함이 분명해졌다고 보고서 제작 관계자들은 말함. 새로운 보고서는 보다 잘 설계된 EM의 개발은, 공해조업에 투명성을 보다 높이고, 승선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미래의 변수들에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※ 기사 출처: www.atuna.com¹⁾

1)<https://atuna.com/news/report-shows-challenges-guidelines-to-develop-rfmos-e-monitoring?highlight=Wyjtb25pdG9yaW5nIl0=>

- 두 개의 환경단체가 새로운 연방법률이 “참다랑어 자원의 근간을 위협”하고 국가의 주요 어업 및 자원보존에 관한 법들에 배치된다며 미국 당국에 소송을 제기하였음.
- ‘건강한 만 및 거북이 섬 회복을 위한 네트워크’는 4월 2일에 발효한 국립해양수산지원청(NMFS)의 2020년 참다랑어 혼획법에 문제를 제기했음. NGO는 이 조치로 인하여 미국의 북서 금지해역과 멕시코만의 금지어구 해역에서 원양 연승선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하였음. 멕시코만은 참다랑어의 서부대서양 내 유일한 산란장으로 알려져 있음.
- 제소는 4월 29일 매릴랜드 지방법원에 이루어졌고, 피고는 NMFS, 해양대기청(NOAA), 상무부임. 원고는 환경법 전문로펌 Earthjustice에 의해 대표되었음.
- “산란장에 있는 참다랑어를 어획하는 것을 허용하는 NMFS의 결정은 참다랑어 자원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다”라고 Earthjustice의 변호사는 말했음.
- 원고인 환경단체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법이 Magnuson-Stevens 수산보존관리법, 대서양 다랑어협약, 국가환경정책법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음.
- “NMFS의 결정은 기관 자체적인 데이터와 경험에도 배치되고, 국내법 및 국제조약상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”이라고 원고는 주장했음.

※ 기사 출처: www.atuna.com²⁾

2)

<https://atuna.com/news/ngos-sue-trump-s-administration-for-bluefin-bycatch-law-2?highlight=Wyj0cnVtcCIslRydW1wJ3MiXQ==>

□ 인도네시아 수산부 여전히 철저히 자국 수역 감시 중임 밝혀

-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어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도네시아 수역 내 불법어업 단속이 약해졌을 것이라 여기며 이를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힘
- 인도네시아 수산법은 폭발물 및 청산가리 등 파괴적인 조업방법을 금지하고 있으나,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동제한 등의 신규 조치로 일부 어민들이 자신들의 운을 시험하며 불법 조업을 시도 중임
- 이러한 상황에서 파괴적인 어업 관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, 모든 당국 및 지방정부가 이를 우려함
-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국 첫 코로나 확진자가 보고되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19척의 외국 선박을 나포하였음
- 동 선박들은 베트남, 말레이시아, 필리핀 등의 국적을 가지며, 북 나투나, 술라웨시 해, 말라카 해협 등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됨
- 이에 더해 파괴적인 어업을 한 혐의를 받는 다수의 자국 선박이 보고되기도 함
- 인도네시아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당국의 해상감시가 느슨해졌다는 인상을 받은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
- 이에 인도네시아 수산부는 코로나 사태에도 자국 수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어업에 취약한 지역에 상시 대기하고 있음을 밝힘
- 외국어선 금지법을 제정한 수지 푸지아투티 전 인도네시아 수산부 장관은 외국 어선을 나포해 침몰시키는 불법 어업 대응 정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침
- 동 정책은 나포된 어선의 기국으로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전문가 뿐 아니라 국내외

대중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인도네시아 수역의 어족자원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

- 하지만 17,000개의 섬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해안선을 형성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해상 단속은 여전히 주요 문제로 남아있음
- 현 인도네시아 수산부 장관은 최근 나포된 불법 어선의 침몰 정책을 중지하려는 계획을 고려해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음
- 수산부는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자금 지출로 인해 금년 예산이 1.8조 루피아(약 1억1,900만 달러) 삭감되었다고 지난 4월 22일 밝힘
- 코로나 대응의 일환으로 어류판매 촉진책과 수산물 수요 감소로 인한 피해 어민 지원금 제공 등이 실행됨
- 인도네시아는 총 270억 달러의 예산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편성한 상태

※ 기사 출처: Eco-Business³⁾

<https://www.eco-business.com/news/indonesia-covid-19-no-excuse-for-dropping-guard-against-illegal-fishing/>

□ 베트남 수산부 중국 인근 지방정부에게 예방조치 실행 촉구

- 베트남 농업부는 자국 새우 양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맞닿은 자국 지방정부들에게 십각류 무지개 바이러스(decapod iridescent virus 1)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
- 2014년 처음으로 창궐할 동 질병은 최대 80%의 누적 사망률을 보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서, 지난 2월 중국 광둥성 지방에서 발병하여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
- 동 질병으로 베트남의 주요 새우 양식종인 흰다리새우(vannamei shrimp)와 큰징거미새우(giant freshwater prawn) 양식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
- 베트남 수산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동 질병 발병사례는 나오지 않은 상황
- 하지만 생물안보를 위해 동 수산부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새우종자 및 어분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과 맞닿은 지방 정부에게 지시함
- 동 규칙을 어기는 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, 지방 당국, 경찰, 국경수비대, 시장 감시 공무원 등은 동 질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협조를 요청받음
- 1/4분기 베트남 새우 수출은 중국, 미국, 일본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에 힘입어 전년 대비 1.8퍼센트 증가하여 6억 2,860만 달러를 기록함

출처: The Fish Site⁴⁾

□ 타이 유니언,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후 가동 중단한 가나 공장 재가동

- 타이 유니언(Thai Union)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3주간 폐쇄하였던 가나의 공장을 5월 18일 재가동 하였다고 밝혔음
- 타이 유니언은 지난 4월 17일 자사 공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자 즉시 공장을 폐쇄하였으며 가나 보건 당국과 협조하여 전 직원의 코로나 검사를 하였음
- 그 결과 533명의 공장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, 이는 가나 전체 감염자의 11%에 육박하였음

□ 세계 어류 처리 공장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 잇따라

- 미국의 대형 수산기업 하이라이너 푸드(Highliner Food)는 직원이 4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주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위생 방역을 실시하였음
- 미국 메인주(州)의 브리스톨 시푸드사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음

출처:IntraFish⁵⁾

5)

<https://www.intrafish.com/processing/thai-union-reopens-ghana-factory-after-massive-coronavirus-outbreak/2-1-812318>